

《論語》《孟子》에 나타난 동사‘謂’의 어법특징 고찰

鄭珍梅 · 邊滢雨*

◁ 목 차 ▷

- I. 緒言
 - II. ‘謂’의 사람에 대한 평가
 - 1. ‘謂+O1+O2’기본문형
 - 2. ‘謂+O1+O2’확장문형
 - III. 謂의 ‘말하다’의미
 - 1. ‘謂+O1+O2’기본문형
 - 2. ‘謂+O1+曰+O2’
 - IV. ‘謂’의 사실 혹은 명제에 대한 평가
 - 1. 지칭
 - 2. 평가
 - V. 의문대사 ‘何’와 ‘謂’가 쓰인 문형
 - 1. T(O1(何))+謂+O2
 - 2. T_L(O1)+O2(何)+謂
 - VI. 結語
-

I. 緒言

王力(1980[2002]:357)은 중국어 어순 설명부분에서 ‘是謂’를 ‘是以’처럼 고정적으로 목적어를 전치시키는 형태로 보았고, 이러한 전치형태는 ‘自’와 ‘相’이 더 있다고 하였다. 그는 ‘是謂’를 현대중국어로 번역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것을 ~라고 부른다¹⁾’의 의미로 설명했다. 그가 들은 예문을 열거해보면 아래와 같다.

* 鄭珍梅 弘益大學校 經營學科 助教授. 邊滢雨 成均館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1) ‘是謂’譯成現代漢語是“人們把它叫做”或“我們把它叫做”。

彼民有常性，織而衣，耕而食，是謂同德。(《莊子·馬蹄》)
 獨往獨來，是謂獨有；獨有之人，是謂至貴。(《莊子·在宥》)
 天下之非譽，無益損焉，是謂全德之人哉！(《莊子·天地》)
 與天地爲合，其合緝緝，若愚若昏，是謂玄德。(《莊子·天地》)
 此三材者而無失其次，是謂人主之道也。(《荀子·君道》)
 殺人者不死，而傷人者不刑，是謂惠暴而寬賊也。(《荀子·正論》)

그는 위 예문의 '是'를 모두 '謂'의 목적어 전치형태로 보았다. 그와 반대로 위 예문의 '是'에 대해 郭廣敬(1984)과 王冠軍(1984)은 '謂'의 목적어 전치형태로 보지 않고, '是謂'를 주술구조로 보고, '是'를 앞의 주어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았다.²⁾ 郭廣敬(1984)은 “富與貴，是人之所欲也。(《論語·里仁》)”와 같은 예문을 열거하면서 '是謂'의 '是'는 이와 같이 앞에 성분을 지시하면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王冠軍(1984)은 번역으로 접근하여 이를 주술구조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 차는 '謂'의 사용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謂'는 先秦時期的 문헌에서 매우 상용되면서 다양성을 띠는 동사이다. 邊滢雨(1997)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謂'는 《論語》에서 네 가지 의미의 사용이 보인다. 그는 '謂'의 사용의미에 따라 '謂1', '謂2', '謂3', '謂4'로 나누었고, 그가 정리한 의미 항목은 아래와 같다.

謂1 '~이다, ~라고 부른다'(說的是, 叫做)
 謂2 '알리다, 어떠한 사람에게 말하다'(告訴, 對某人說)
 謂3 '이야기 하다, 평론하다'(談到, 評論)
 謂4 '~라 칭한다, ~라고 부른다'(稱爲, 叫做)

이 네 의미항목은 '謂'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고문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孔子謂季氏：“八佾舞於庭，是可忍也，孰不可忍也。”(《論語·八佾》)

2) 郭廣敬(1984:89) '是謂'爲總括上文的主謂結構而非動賓倒置的動賓結構。
 王冠軍(1984:127)因而'是謂'結構是主謂結構，而不是動賓結構。

이 문장의 해석은 공자가 계씨에게 “八佾舞於庭，是可忍也，孰不可忍也.”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씨에 대한 평가내용이다. ‘謂’가 ‘말하다’의 의미를 가질 때는 ‘或謂孔子曰：“子奚不爲政?”’의 문장처럼 말하는 대상과 말하는 내용 사이에 일반적으로 ‘曰’이 쓰인다. 이처럼 ‘謂’의 ‘평가하다’와 ‘말하다’의 의미항목에서 나타나는 의미와 용법을 잘못 이해하면 해석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

張先坦(2011:34)은 戰國策의 이중목적어구조연구에서 이중목적어 간의 의미관계에 대해서 領屬關係, 同一關係, 陳述關係, 相似關係, 不確定關係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 同一關係를 설명하면서 ‘稱謂’류의 이중목적어가 지시하는 것은 동일사물임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曰：“謂之烏，可乎？”曰：“不可。”《戰國策·韓策二》
- (2) 應侯曰：“鄭人謂玉未理者璞”《戰國策·秦策三》
- (3) 古今稱之：“樂羊食子以自信，明害父以求法。”《戰國策·中山策》
- (4) 今使人而不能，則謂之不肖。《戰國策·齊策三》

(1)(2)(3)(4)의 예에서 두 개의 목적어 ‘之’와 ‘烏’, ‘玉未理者’와 ‘璞’, ‘之’와 ‘樂羊食子以自信，明害父以求法.’, ‘之’와 ‘不肖’는 비록 논리적으로 ‘名’과 ‘物’관계이지만, 의미상 동일 사물을 지시한다고 하였다. 張先坦(2011:34)은 ‘謂’가 갖는 이중목적어구조에 대해 설명을 하였지만, 위에 서술한 간단한 설명에 그쳤다. 사실상 邊滢雨(1997)의 통계를 참고하면, 4가지 의미항목에는 모두 이중목적어가 존재한다. 즉, 각 의미항목별로 이중목적어를 갖는 특징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張先坦(2011:34)은 각 의미항목별 이중목적어 구조의 특징은 간과하고 하나의 의미항목처럼 서술하고 있다. 본고는 邊滢雨(1997)의 통계를 참고하면서 《論語》와 《孟子》에 나타난 ‘謂’의 이중목적어구조에 대해 다음의 항목별로 자세히 분석을 하고자 한다.

1. ‘謂’의 사람에 대한 평가
2. ‘謂’의 ‘말하다’의미
3. ‘謂’의 사실 혹은 명제에 대한 평가
4. 의문대사 ‘何’와 ‘謂’가 쓰인 문형

II. ‘謂’의 사람에 대한 평가

사람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는 기본문형과 확장문형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기본문형은 ‘謂+O1+O2’의 형식을 이룬다. 이문형에서 O1은 ‘평가 대상인’이고, O2는 ‘평가내용’이다. 변형문형은 O1이 주체주어가 되는 경우와 O2가 주체주어가 되는 경우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謂+O1+O2’기본문형

기본문형 ‘謂+O1+O2’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O2가 일음절 혹은 이음절로 되어 매우 짧은 것과 O2가 매우 긴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O2가 짧은 것은 《論語》와 《孟子》에 다음의 6가지 예가 있다.

- (1) 子曰：“孰謂微生高直？或乞醯焉，乞諸其鄰而與之。”《論語5·24》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微生高를 곧은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초를 얻으러 오자 그것을 그의 이웃에서 얻어다가 주었다.”)
- (2) 王笑曰，“是誠何心哉？我非愛其財而易之以羊也。宜乎百姓之謂我愛也。”《孟子1·7》
(왕이 웃으면서 “그것은 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 나는 財物을 아끼는 것이 아니었지만, 소를 羊으로 바꿔 쓰게 하였으니,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아낀다고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 (3) 子產曰，“得其所哉！得其所哉！”校人出，曰，“孰謂子產智？予既烹而食之，曰，得其所哉，得其所哉。”《孟子9·2》
(子產은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갔네,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갔네” 하고 말했다. 연못지기가 물러나와서 ‘누가 子產이 지혜롭다고 하였을까? 내가 이미 삶아서 먹어버렸는데도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갔네,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갔네’라고 말을 하니.”)
- (4) 曰，“異於白馬之白也，無以異於白人之白也，不識長馬之長也，無以異於長人之長與？且謂長者義乎？長之者義乎？”《孟子11·4》
(“흰 것의 경우와는 다르네. 말(馬)의 흰 것은 흰 사람의 흰 것과 다를 것이 없네. 모르기는 하지만, 나이먹은 말(馬)의 나이 많은 것이 나이 많은

사람의 나이 많은 것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또 나이 많은 것을 의롭다고 하겠는가, 나이 많은 이로 받드는 것을 의롭다고 하겠는가?)

- (5) 或曰：“孰謂鄴人之子知禮乎？入太廟，每事問。”《論語3·15》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鄴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禮를 안다고 하였는가? 大廟에 들어가면 매사를 묻곤 하는데.”)
- (6) 子謂薛居州，善士也，使之居於王所。《孟子6·6》
 (당신은 薛居州(설거주)를 좋은 선비라고 하여 그를 왕이 있는 곳에 거처하게 하였소.)

(1)(2)(3)(4)의 예는 평가내용에 해당하는 O2가 모두 형용사이며, (5)는 ‘V+O’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동사는 非自主性 동사이다. (6)의 O2는 명사술어문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6)의 예문에서 ‘謂’와의 관계에서는 O1(평가 대상)과 O2(평가내용)로 볼 수 있으며, 그 O1과 O2의 의미관계는 주어와 술어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O2가 긴 문장인 경우는 《論語》에만 다음의 10가지 예가 있다. 편폭의 제한으로 번역은 제외했다.

- (7) 孔子謂季氏：“八佾舞於庭，是可忍也，孰不可忍也？”《論語3·1》
- (8) 子謂公冶長：“可妻也。雖在縲紲之中，非其罪也。”《論語5·1》
- (9) 子謂南容：“邦有道，不廢；邦無道，免於刑戮。”《論語5·2》
- (10) 子謂子賤：“君子哉若人！魯無君子者，斯焉取斯？”《論語5·3》
- (11) 子謂子產：“有君子之道四焉，其行己也恭，其事上也敬，其養民也惠，其使民也義。”《論語5·16》
- (12) 子謂仲弓曰：“犁牛之子騂且角，雖欲勿用，山川其舍諸？”《論語6·6》
- (13) 子謂顏淵曰：“惜乎！吾見其進也，未見其止也。”《論語9·21》
- (14) 子謂衛公子蒯：“善居室。始有，曰：‘苟合矣。’少有，曰：‘苟完矣。’富有，曰：‘苟美矣。’”《論語13·8》
- (15) 謂“柳下惠、少連，降志辱身矣。言中倫，行中慮，其斯而已矣。”
 謂“虞仲、夷逸，隱居放言。身中清，廢中權。”我則異於是，無可無不可。
 《論語18·8》

(7)~(15)의 문장은 일반적으로 ‘曰’을 쓰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12)(13)의 예는 평가의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曰’을 쓴 경우인데 ‘~에게~라고 말하다’

의미와의 구별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2. '謂+O1+O2' 확장문형

'謂+O1+O2'의 확장문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평가대상인 O1이 주제화 되는 경우와 평가내용인 O2가 주제화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O1이 주제화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주제화된 경우는 T(O1), T(O2)로 표기한다.

- (16) 泰伯, 其可謂至德也已矣. 《論語8·1》
(泰伯이라면 지극한 德을 칭할 수 있을 것이다.)
- (17) 仲由、冉求可謂大臣與? /所謂大臣者, 以道事君, 不可則止. 今由與求也, 可謂具臣矣. 《論語11·24》
(仲由와 冉求라면 훌륭한 신하(大臣)라 할 수 있습니까? 훌륭한 大臣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正道로 임금을 섬기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그만 둡니다. 지금 由와 求是 상당한 재능을 갖춘 신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8) 若曾子, 則可謂養志也. 事親若曾子者, 可也. 《孟子7·19》
(曾子 같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봉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를 섬기는 데는 曾子같이 하는 사람이면 된다.)
- (19) 孔子之謂集大成. 集大成也者, 金聲而玉振之也. 金聲也者, 始條理也, 玉振之也者, 終條理也. 始條理者, 智之事也, 終條理者, 聖之事也. 《孟子10·1》
(孔子 같으신 분은 集大成했다고 할 수 있다. 集大成했다는 것은 금속소리에다가 옥소리를 떨쳐낸 것이다. 금속소리라는 것은 조리있게 시작하는 것이고, 옥소리를 떨쳐낸다는 것은 조리있게 끝맺는다는 것이다. 조리있게 시작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일이고, 옥소리를 떨쳐낸다는 것은 聖德을 지닌 사람이 하는 일이다.)
- (20) 曰, “賊仁者謂之‘賊’, 賊義者謂之‘殘’. 殘賊之人謂之‘一夫’.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 《孟子2·8》
(“인자한 사람을 해치는 者를 凶暴하다고 하고, 외로운 사람을 해치는 者를 殘虐하다고 합니다. 凶暴하고 잔학한 인간은 한 사나이이라고 합니다. 한 사나이인 紂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살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21) 子貢問曰：“孔文子何以謂之文也？”子曰：“敏而好學，不恥下問，是以謂之文也。”《論語5·15》

(子貢이, “孔文子は 무엇 때문에 文이라 부르게 되었습니까?”하고 여쭙어 보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것이 빠르고 배우기를 좋아하여,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文이라고 부른 것이다.”)

(16)(17)(18)의 공통된 부분은 O1의 주제화를 통해서 명사술어문의 가정문형식으로 이루어진 형태다. (16)(17)은 형태표지가 없는 가정문 형태이지만, (18)의 경우는 형태표지로 가정을 나타내는 ‘則’이 쓰인 경우로 볼 수 있다. (19)의 예는 孔子가 집대성했다는 것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孔子’가 주제화시켜 전치된 표지로 조사‘之’를 사용하였다. (20)의 예는 3개의 병렬된 형식을 취하였으며, O1을 주제화 시키고 전치된 흔적을 지시대사‘之’를 ‘謂’의 뒤에 오게 한 것이 특징이다. (20)에서 ‘一夫’는 비록 명사이지만, ‘紂’임금에 대해 폄하하는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一夫’라고 칭하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평가로 분석을 하였다. (21)에서도 ‘文’은 죽고 나서 내리는 시호자체가 평가를 내린 명칭이기 때문에 역시 사람에 대한 평가로 분석을 하였다. (21)의 ‘敏而好學，不恥下問，是以謂之文也’에서 ‘敏而好學，不恥下問’이 주제화 되어 ‘之’로 지시된 것처럼 볼 수 있으나, 여기서 이미 앞에서 주어로 나온 ‘孔文子’를 지시하기 때문에, 두 개의 ‘之’는 모두 ‘孔文子’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6)(17)(18)의 예에 대한 보충설명을 위해서, ‘사실 혹은 명제에 대한 평가’에 해당하는 예문이지만, 가정문 형식으로 쓰인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22) 悅賢不能學，又不能養也，可謂悅賢乎？《孟子10·6》

(賢良한人材를 좋아하면서 천거하지 못하고 또 그를 기르지 못하면, 현량한 인재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23) 孟子曰，“仁之勝不仁也，猶水勝火。今之爲仁者，猶以一杯水救一車薪之火也，不熄，則謂之水不勝火，此又與於不仁之甚者也，亦終必亡而已矣。”《孟子11·18》

(孟子께서 말씀하시었다.“仁慈함이 인자하지 않음을 이기는 것은 마치 물이 불을 이기는 거와도 같다. 요즈음 인자함을 실천하는 사람은 마치 한 잔의 물을 가지고 수레 한 채에 실려 있는 땔나무에 불은 불을 끄는 것과

같이, 꺼지지 않으면 물이 불을 이기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 매우 인자하지 않은 것에 편드는 것으로, 역시 결국에는 반드시 그 인자함마저 잃어버리고 말 따름이다.”)

(22)(23)과 같이 많은 구절로 이루어진 O1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O1의 전체 혹은 일부가 가정문을 이루는 경우 대부분 ‘可’를 많이 썼으며 간혹 ‘則’이 쓰였다. 이러한 방증을 통해서 (16)(17)(18)의 예는 명사술어문의 가정문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일반 명사술어문의 해석은 ‘~은~이다’이지만, 가정문 형식은 ‘~이라면~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문형을 형식화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문형	개수
T(O1)+(其)可+謂+O2	2
若T(O1)+(則)可+謂+O2	1
T(O1)+之+謂+O2	1
T(O1)+謂+之+O2	1

O2가 주제화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24) 王說曰, “詩云, ‘他人有心, 予忖度之.’ 夫子之謂也.—” 《孟子1·7》
(왕이 기뻐하면서 “詩에 이르길, ‘다른 사람이 마음 속에 지니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헤아려 아노라’ 하였는데, 선생 같은 분을 두고 한 말일 겠니다.—”)
- (25) 詩云, ‘周雖舊邦, 其命維新.’ 文王之謂也. 子力行之, 亦以新子之國! 《孟子5·3》
(詩에 이르길 ‘周나라는 비록 오래된 나라이기는 하나, 그 받든 바 王命은 새롭도다.’ 하였는데 이는 文王을 두고 한 말입니다. 선생께서 힘써 행하시면 역시 선생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24)(25)의 예는 경전의 내용(O2)을 인용하여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과 평가대상인(O1)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에는 O2와 O1 모두 ‘謂’의 앞으로 전치된 형식을 띤다. 즉, 경전의 내용을 먼저 서술하여 주제화시킨 다음, O1을 전치를 나타내는 형태표지로 조사‘之’를 쓰게 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형식은 사람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실 혹은 명제에 대한 평가’부분에서 경전의 내용을 인용하여 어떤 사실이나 명제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경전의 내용이 한 구절 이상 긴 문장이 올 때에는 이와 유사한 ‘此之謂’의 형식을 취하였다.

문형을 형식화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문형	개수
TL(O2)+O1之+謂(也) ³⁾	2

Ⅲ. ‘謂’의 ‘말하다’ 의미

‘謂’의 ‘말하다’ 의미항목에 해당되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謂+O1+O2’기본문형을 이룬다. 여기서 O1은 말하는 대상인이고, O2는 말하는 내용이다.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謂+O1+O2’기본문형

‘謂+O1+O2’의 구조는 해석이 두 가지로 형태로 나타난다.

- (1) 齊宣王問曰, “人皆謂我毀明堂, 毀諸? 已乎?” 《孟子2·5》
(齊 宣王이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明堂을 헐어버리라고 말하는데 헐어버릴까요, 그만둘까요?”하고물었다.)
- (2) 宣王問曰, “或謂寡人勿取, 或謂寡人取之. —” 《孟子2·10》
(宣王이 “어떤 사람은 과인에게 燕나라를 빼앗지 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과인에게 그것을 빼앗아버리라고 합니다. —”)
- (3) 相秦而顯其君於天下, 可傳於後世, 不賢而能之乎? 自鬻以成其君, 鄉黨自好者不爲, 而謂賢者爲之乎? 《孟子9·9》
(그 때에 秦나라에 등용되어 繆公이 함께 일할 만함을 알고서 그를 도왔다)

3) TL의 표시는 Topic(주제)와 문장이 길다는 의미의 ‘long’의 약자로 표시하였다. 즉, T는 한 구절로 구성된 문장을 지칭하고, TL은 두 구절이상의 문장을 지칭한다.

면 지혜롭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느냐? 秦나라의 재상이 되어 그 國君을 온 천하에 유명해지게 하여 後世에까지 전해지게 하였으니, 賢良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겠느냐?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 임금의 사업을 이룩하게 하는 일은 시골의 명성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하지 않는데 현량한 사람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한 것이겠는가?)

- (4) 人之有是四端也，猶其有四體也。有是四端而自謂不能者，自賊者也，謂其君不能者，賊其君者也。《孟子3·6》

(사람들이 이 四端을 지니고 있는 것은 그들이 四肢를 가진 것과도 같다. 이 四端을 지니고 있으면서 좋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이고, 자기 임금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임금을 해치는 사람이다.)

- (5) 萬章問曰，“或謂孔子於衛主癡疽，於齊主侍人瘠環，有諸乎? 《孟子9·8》
(萬章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孔子는 衛나라에서는 癡疽(옹저)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계셨고, 齊나라에서는 侍人 瘠環(척환)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계셨다고 하옵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하고 여쭙어보았다.)

- (6) 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皆有怵惕惻隱之心——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非惡其聲而然也。《孟子3·6》

(사람마다 차마 남에게 잔악하게 굴지 못해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이러하다. 이제 사람들은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힐끗 보기만 해도 다들 겁이 나고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동네 사람들과 벗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아이의 지르는 소리가 역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1)(2)(3)예문에서 ‘謂’의 O1과 O2는 각각 ‘我’와 ‘毀明堂’, ‘寡人’과 ‘勿取’, ‘賢者’와 ‘爲之’이다. 게다가 O1과 O2의 관계는 주어와 술어의 관계이다. 즉, 겸어문 형식을 이룬다. ‘~에게~을 하라고 말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4)의 예문은 (1)(2)(3)예문과 같이 O1과 O2의 구조를 지녔지만, ‘~에게~을 말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차이점은 O2의 술어동사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2)(3)예문의 ‘毀’, ‘取’, ‘爲’는 [+自主性]의 의미자질을 지니지만, (4)의 ‘能’은 [-自主性]의 의미자질을 지녔기 때문에 해석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1)(2)(3)(4)모두 O1과 O2의 구성성분을 지니지만, O2에 해당하는 술어동사의 의미자질의 특성에서 해석이 다르게 나온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4)의 예

문이 O1과 O2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것 중의 하나는 ‘自謂不能者’에서 ‘自’의 부분이다. 지시대사‘自’가 의미상으로는 목적어에 해당하지만, 항상 술어 앞에 위치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5)(6)의 예문으로 마치 O1과 O2의 관계처럼 보인다. ‘孔子於衛主癰疽，於齊主侍人瘠環’와 ‘人皆有不忍人之心者’의 내부구조는 ‘S+PP+VP’와 ‘S+adv+VP’로 복잡하지만, 그 자체가 O2에 해당한다. 예문 (1)(2)(3)(4)와의 차이점은 S와 VP 사이에 부사어가 존재하고 있으며, ‘謂’와 S와의 관계가 겹어문처럼 동목구조의 관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의 예문 외에 O1만 나타나는 경우는 1개의 예가 있었다.

(7) 謂王良.

(왕량에게 말하였다.) 《孟子6·1》

예문(4)(5)처럼 O2만 나타났지만 앞에 ‘曰’이 쓰이게 된 예문(7)이 있었다. 이는 아마도 (4)(5)처럼 문장이 길지 않고 단음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O2를 나타내고자 하는 형태표지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8) 五月居廬，未有命戒。百官族人可，謂曰知。及至葬，四方來觀之，顏色之戚，哭泣之哀，弔者大悅。《孟子5·2》

(5개월 동안 廬幕에 거처하면서 명령이나 注意事項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모든 관원들과 族親들이 잘하는 일이라고 여기고(世子가 禮를) 안다고 들 말했다. 葬儀를 치르게 되자 사방에서 와 보았는데, 世子의 얼굴빛은 슬펐고, 그가 뜻하고 우는 것이 애절하여, 弔喪하는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2. ‘謂+O1+曰+O2’

‘謂+O1+O2’ 기본문형에서 O1과 O2의 사이에 ‘曰’이 오는 경우가 있다. 《孟子》에 나타난 ‘謂+O1+曰+O2’구조는 15개의 예가 있으며, O2는 예외 없이 인용문이 왔으며, 두 구절 이상의 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15개의 예 중에서 (9)(10)의 예를 참고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9) 無若宋人然，宋人有閔其苗之不長而揠之者，芒芒然歸，謂其人曰，‘今日病矣！予助苗長矣！’《孟子3·2》
 (宋나라 사람이 한 것 같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宋나라 사람 중에 자기가 심은 곡식 싹이 자라나지 않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싹을 뽑아올린 사람이 있었네. 그 사람은 피곤해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집안사람들에게, ‘오늘은 지쳤다. 나는 싹이 자라나는 것을 도와주었다’)
- (10) 孟子謂萬章曰，“一鄉之善士斯友一鄉之善士，一國之善士斯友一國之善士，天下之善士斯友天下之善士。”《孟子10·8》
 (孟子께서 萬章에게 말씀하시었다. “한 고을의 좋은 선비일 경우에는 한 고을의 좋은 선비를 벗으로 사귀고, 한 나라의 선한 선비일 경우에는 한 나라의 좋은 선비를 벗으로 사귈다.”)

《論語》에서의 ‘謂+O1+曰+O2’구조는 10개의 예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曰’뒤의 O2는 모두 인용문이 따른다. 다만, 《孟子》의 예와는 다르게 O2가 긴 문장이 아닌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3개의 예가 보이며, 모두 의문문의 형태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1) 或謂孔子曰：“子奚不爲政?”《論語2·21》
 (어떤 사람이 孔子께, “선생님께서 왜 정치를 하시지 않으십니까?”하고 물었다.)
- (12) 子謂冉有曰：“女弗能救與?”《論語3·6》
 (선생님께서 冉有(염유)에게, “너는 (그 사람을 僭越한 죄에서) 구해낼 수 없느냐?”하고 물었다.)
- (13) 子謂子貢曰：“女與回也孰愈?”《論語5·9》
 (선생님께서 子貢에게, “너와 回중에서 누가 나은냐?”고 물었다.)

IV. ‘謂’의 사실 혹은 명제에 대한 평가

사실 혹은 명제에 대한 평가는 앞에서 서술한 ‘사람에 대한 평가’와 ‘말하다’부분과는 다르게 상당히 다양한 문장형태를 이룬다. 사실 혹은 명제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게 대한 평가와는 다르게 O1은 평가대상 사실 혹은 명제이고 O2는 평가내용이

다. O1은 평가대상 사실 혹은 명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장이 길게 나타나며, 주로 주제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은 [+지칭]과 [+평가] 두 개의 의미자질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다시 [+지칭]과 [+평가]에 대해서 각각 기본문형과 확장문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지칭

1) 지칭 ‘謂+O1+O2’ 기본문형

지칭을 나타내는 ‘謂+O1+O2’의 기본문형이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1이 긴 문장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제화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謂+O1+O2’의 기본문형이 나타난 경우는 (1)의 예 1개가 있었다. (2)의 예는 중간에 ‘曰’이 삽입되었지만, O1이 앞으로 주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謂+O1+曰+O2’의 기본문형으로 간주하였다.

- (1) 曰, “子以爲有王者作, 將比今之諸侯而誅之乎? 其教之不改而後誅之乎? 夫謂非其有而取之者盜也, 充類至義之盡也. —”《孟子10·4》
 (“자네 생각에는王者가 일어나게 되면 지금의 諸侯들을 갱그리 죽이겠는가, 그들을 가르쳐도 고치지 않은 후에 죽이겠는가? 자네의 소유가 아닌데 그것을 취하는 者를 도둑이라고 하여 그것을 最大限으로 類推하는 것은 극단적인 의논이 되고 마는 것이다.—”)
- (2) 文王以民力爲臺爲沼, 而民歡樂之, 謂其臺曰靈臺, 謂其沼曰靈沼, 樂其有麋鹿魚鼈. 《孟子1·2》
 (文王은 국민의 힘을 가지고 臺를 만들고 沼를 만들고 하였으나 국민들은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여겨 그 臺를 靈臺라고 불렀고, 그 沼를 靈沼라고 불렀으며, 거기에 크고 작은사슴들, 물고기와 자라들이 있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예(1)은 O1‘非其有而取之者’가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謂’ 뒤에서 O1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예이다. 이는 아마도 ‘謂非其有而取之者盜也’앞에 문두어기사 ‘夫’로 묶어서 夫(謂+O1+O2)의 형태로 판단문의 주어 역할을 나타내는 것 과

관련이 있다.

2) 지칭 ‘謂+O1+O2’ 확장문형

확장문형은 일반적으로 O1이 주제화 되는 문형으로 T(O1)(T: topic)으로 표시한다.

① T(O1)이 짧은 경우(한구절로 이루어진 경우)

i. T(O1)+謂+之+O2: 21개

- (3) 堯以不得舜爲己憂，舜以不得禹臯陶爲己憂。夫以百畝之不易爲己憂者，農夫也。分人以財謂之惠，教人以善謂之忠，爲天下得人者謂之仁。是故以天下與人易，爲天下得人難。《孟子5·4》
 (堯임금은舜을 얻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근심으로 삼았고,舜은禹와臯陶(고요)를 얻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근심으로 삼았소.百畝의 밭이 가꾸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근심으로 삼는 사람은 농부요.남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惠’라 하고,남에게 품을 가르치는 것을 ‘忠’이라 하고,천하를 위하여人物을 얻는 것을 ‘仁’이라 하오.그렇기 때문에天下를 남에게 주기는 쉽고,天下를 위해 인물을 얻기는 어렵소.)
- (4) 不教而殺謂之虐；不戒視成謂之暴；慢今致期謂之賊；猶之與人也，出納之吝，謂之有司。《論語20·2》
 (가르치지 않고서 죽이는 것을 ‘虐’이라고 한다. 미리 경계해 놓지 않고서 일의 완성을 재촉하는 것을 ‘暴’이라고 한다. 소홀하게 명령해 놓고 시기를 꼭 대도록 기대하는 것을 ‘賊’이라고 한다. 고루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데 있어 내고 들이는 것을 인색하게 하는 것을 有司라고 한다.)
- (5) 子路問曰：“何如斯可謂之士矣？”《論語13·28》
 (子路가, “어떻게 해야 선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 (6) 不憂不懼，斯謂之君子已乎？子曰：“切切偲偲，怡怡如也，可謂士矣。”《論語12·4》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곧 君子라는 것입니까?)
- (7) 雖曰未學，吾必謂之學矣。《論語1·7》
 (비록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배웠다고 할 것이다.)

‘T(O1)+謂+之+O2’의 구조는 모두 21개이지만, 그 중에서 (5)(6)(7)의 4개의 예는 가정문과 양보문을 이루고 있다. 가정문을 이룰 때는 ‘謂’앞에 동사 ‘可’와 ‘斯’고 왔으며, 양보문을 이룰 때는 전체 문장 앞에 접속사‘雖’와 ‘謂’앞에 주어‘吾’와 부사‘必’과 같은 성분들이 와서 문장이 (3)(4)와 같은 일반적인 지칭문장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6)의 두 번째 ‘謂’뒤에는 지시대사‘之’가 오지 않았으며, 이는 아마도 앞의 구절이 길기 때문에 ‘之’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장은 ‘평가’에 해당하는 문장에서 ‘T_L(O1)+謂+O2’ 형식이 가정문에서 많이 쓰이는 것으로 봐서 ‘之’를 쓰지 않은 이유는 O1에 해당하는 주제가 길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i. T(O1)+之+謂+O2:2개

T(O1)+之+謂+O2’의 구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예문은 2개가 보인다.

(8) 告子曰, “生之謂性.” 《孟子11·3》

(告자가 “생겨난 것(生)을 性이라고 합니다”하고 말씀드렸다.)

(9) 孟子曰, “生之謂性也, 猶白之謂白與?” 曰, “然.” 《孟子11·3》

(孟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겨난 것을 性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같은가?” “그렇습니다.”)

(8)(9)의 예문에서 O1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음절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② T(O1)이 긴 경우(한구절 이상인 경우)

T(O1)이 긴 경우 다양한 형태의 문장이 나타났다.

i. T_L(O1)+皆+謂+O2: 1개

(10) 孟子曰, “在國曰市井之臣, 在野曰草莽之臣, 皆謂庶人. 庶人不傳質爲臣, 不敢見於諸侯, 禮也.” 《孟子10·7》

(孟子께서는 “도시에 있으면 市井之臣이라 하고, 草野에 있으면 草莽之

臣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다 庶人이라고 부른다. 庶人은 國君을 만나 獻上品을 전달하여 신하가 되지 않는 한 감히 諸侯를 만나보지 못하는 것이 禮다” 라고 말씀하셨다.)

(10)의 문장은 부사'皆'를 쓴 형태로 의미지향은 앞의 '在國曰市井之臣, 在野曰草莽之臣'를 지향하고 있다.

ii. T_L(O1)+S+不+謂+O2

(11) 孟子曰, “口之於味也, 目之於色也, 耳之於聲也, 鼻之於臭也, 四肢於安佚也, 性也, 有命焉, 君子不謂性也。” 《孟子14·24》

(孟子께서 말씀하시었다. “입이 맛을 아는 것과, 눈이 색을 아는 것과, 귀가 소리를 아는 것과, 코가 냄새를 아는 것과,四肢가 편한 것을 아는 것은 인간의 本性이기는 하나 거기에는 天命이 개재되어 있다. 君子는 그런 것을 本性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12) 仁之於父子也, 義之於君臣也, 禮之於賓主也, 智之於賢者也, 聖人之於天道也, 命也, 有性焉, 君子不謂命也. 《孟子14·24》

(仁이父子간에 베풀어지고, 義가 君臣간에 유지되고, 禮가 賓客과 주인간에 지켜지고, 지혜가 현명한 사람에게 밝혀지고, 聖인이 하늘의 道를 행하는 것은 天命이기는 하나 거기에는 인간의 本性이 개재되어 있다. 君子는 그런 것을 天命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11)(12)의 'T_L(O1)+S+不+謂+O2'과 같은 문형은 매우 드문 형식이며, '謂'의 부정형식이 쓰인 것이 특징이다.

iii. T_L(O1)+則+謂+之+O2(가정)

(13) 孟子曰, “仁之勝不仁也, 猶水勝火. 今之爲仁者, 猶以一杯水救一車薪之火也, 不熄, 則謂之水不勝火, 此又與於不仁之甚者也, 亦終必亡而已矣.” 《孟子11·18》

(孟子께서 말씀하시었다. “仁慈함이 인자하지 않음을 이기는 것은 마치 물이 불을 이기는 것과 같다. 요즈음 인자함을 실천하는 사람은 마치 한 잔의 물을 가지고 수레 한 채에 실려 있는 땔나무에 붙은 불을 끄는 것과

같다. 꺼지지 않으면 물이 불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 이것은 또 인자하지 아니함에 편드는 것의 심한 것으로, 역시 결국에는 반드시 그 인자함마저 잃어버리고 말 따름이다.”)

예문(13)은 TL(O1)이 가정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정의 표지로 접속사‘則’을 쓴 경우이다. 이는 ‘仁’과 ‘不仁’의 관계를 물과 불에 비유해서 나타낸 표현이다.

iv. T_L(O1)+故+謂+O2(원인)

(14) “敢問或曰放者，何謂也？”象不得有爲於其國，天子使吏治其國而納其貢稅焉，故謂之放。《孟子9·3》

(“감히 여쭙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쫓아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요?”象이 그 나라를 다스려내지 못해서 天子가 관원들을 시켜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곳의 貢稅를 받게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를 쫓아냈다고 한 것이다.)

(14)는 원인관계로 되어 있지만, ‘之’에 해당하는 부분은 ‘象이 그 나라를 다스려내지 못해서 天子가 관원들을 시켜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곳의 貢稅를 받게 한 것’을 지칭한다.

v. T_L(O1)+此之謂+O2(가정)

(15) 居天下之廣居，立天下之正位，行天下之大道，得志，與民由之，不得志，獨行其道。富貴不能淫，貧賤不能移，威武不能屈，此之謂大丈夫。《孟子6·2》

(天下리는 넓은 집에 살고, 天下의 올바른 자리에 서고, 天下의 大道를 실천하여, 뜻을 이루면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해 나가고, 뜻을 이루지 못하면 혼자서 자기의 道를 실천하여 富貴도 그의 마음을 혼란시키지 못하고, 貧賤도 그의 마음을 변하게 하지 못하고, 무서운 무력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大丈夫라고 하는 거요.)

‘此之謂’가 쓰인 경우 ‘지칭’부분에서 가정문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15)의 한가지에 밖에 없었다. ‘평가’부분에서 ‘此之謂’형식이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가정문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다.

2. 평가

1) 평가 ‘謂+O1+O2’ 기본문형

- (16) 孟子曰, “何以謂仁內義外也?” 《孟子11·4》
 (孟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근거로 仁은 內在的인 것이고, 義는 外在的인 것이라고 하는가?”)
- (17) 孟季子問公都子曰, “何以謂義內也?” 《孟子11·5》
 (孟季子が 公都子에게 “무엇을 근거로 義가 內在的인 것이라고 합니까?” 하고 물었다.)
- (18) 子謂《韶》: “盡美矣, 又盡善也.” 謂《武》: “盡美矣, 未盡善也.” 《論語3·25》
 (선생님의 말씀이 韶는 美를 다 갖추었고 善을 다 갖추었는데, 武는 美를 다 갖추었으나 善은 다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하셨다.)

(16)는 O1과 O2가 두 번 쓰여 병렬관계를 이루는 특이한 문장이다. O1과 O2가 모두 일음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문장으로 보인다. (18)는 O2에 해당하는 문장이 두 구절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특이한 경우이다. 이는 《論語》에서 사람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O2가 긴 문장으로 이루어진 예문(19)의 것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 (19) 孔子謂季氏: “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論語3·1》

2) 평가 ‘謂+O1+O2’ 확장문형

- ① T(O1)이 짧은 경우(한구절로 끝나는 경우)

i. T(O1)+謂+之+O2: 12개

- (20) 孟子曰, “自暴者, 不可與有言也, 自棄者, 不可與有爲也. 言非禮義, 謂之自暴也, 吾身不能居仁由義, 謂之自棄也.” 《孟子7·10》
 (孟子께서 말씀하시었다.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사람과는 함께 이야기할 게 못된다.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게 못된다. 말을 하는데 禮儀에 어긋나는 것을 스스로 자기를 해친다고 하는 것이다. 내 몸은 인자한 가운데 살거나 義에 따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 (21) 用下敬上, 謂之貴貴, 用上敬下, 謂之尊賢. 貴貴尊賢, 其義一也. 《孟子10·3》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존경하는 것을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존경하는 것을 賢良한 인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현량한 인재를 존중하는 것은 그 意義에 있어서 같은 것이다.)
- (22) 孟子曰, “不教民而用之, 謂之殃民. 殃民者, 不容於堯舜之世. 一戰勝齊, 遂有南陽, 然且不可——” 《孟子12·8》
 (孟子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고서 전투에 동원해서 쓰는 것은 백성들을 재앙에 빠뜨리는 것이라 하오. 백성들을 災殃에 빠뜨리는 사람은 堯 임금과 舜 임금의 세상에는 용납되지 못하오. 한 번 싸워서 齊나라를 이겨 마침내 南陽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 (23) 吾弟則愛之, 秦人之弟則不愛也, 是以我爲悅者也, 故謂之內. 長楚人之長, 亦長吾之長, 是以長爲悅者也, 故謂之外也. 《孟子11·4》
 (내 동생은 그 물건을 좋아하고, 秦나라 사람의 동생은 그 물건을 좋아하지 않는 수가 있으니, 그것은 이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仁)을 內在的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楚나라 사람의 나이 많은 이도 나이 많은 이로 받들고, 또 자기의 나이 많은 이도 나이 많은 이로 받드니, 이 때문에 나이 많은 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義)를 外在的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24) 孟季子問公都子曰, “何以謂義內也?” 曰, “行吾敬, 故謂之內也.” 《孟子11·5》
 (孟季자가 公都子에게 “무엇을 근거로 義가 內在的인 것이라고 합니까?” 하고 물었다. 公都子は 대답하였다. “나의 공경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內在的이라고 합니다.”)

(20)(21)(22)의 특징은 ‘言非禮義，謂之自暴也，吾身不能居仁由義，謂之自棄也.’와 ‘用下敬上，謂之貴貴，用上敬下，謂之尊賢.’에서 ‘T(O1)+謂+之+O2’가 연이어 쓰인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23)(24)는 인과문이 ‘謂’앞에 쓰여서 앞에서 언급한 (17)의 예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있지만, (23)(24)의 ‘之’는 문맥상 주제가 되고 있는 ‘仁’과 ‘義’을 지시한다. 이처럼 인과문으로 쓰였을 때는 ‘謂+之’에서 ‘之’가 지칭하는 것은 앞에 쓰인 인과문을 지칭하는 것인지, 앞의 문장 중에서 어느 특정대상을 지칭하는 것인지 잘 구별해야 한다.

게다가 (20)(21)(22)에서 O1과 O2의 관계는 활용판단문⁴⁾ 중에서 ‘평가’에 해당하는 예문과 유사성을 띤다. 《孟子》에 나타난 활용판단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5) 君不鄉道，不志於仁，而求富之，是富桀也。(《孟子·告子》)
(임금이 正道를 지향하지 않고 仁에다 뜻을 두지 않는데 그를 부유하게 하기를 바라니 그것은 桀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 (26) 君不鄉道，不志於仁，而求爲之強戰，是輔桀也。(《孟子·告子》)
(임금이 正道를 지향하지 않고, 仁에다 뜻을 두지 않는데 그를 위해 무리하게 전쟁하기를 바라니, 그것은 桀을 도와주는 것이다.)
- (27) “挾太山以超北海，語人曰‘我不能’，是誠不能也。”(《孟子·梁惠王》)
(“태산을 겨드랑이에 끼고서 北海를 뛰어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활용 판단문으로 쓰인 (25)(26)(27)은 주어와 술어 사이에 재지시를 나타내는 ‘是’가 쓰였는데, (20)(21)(22)의 O1과 O2를 다음과 같이 ‘是’가 쓰인 활용판단문 형식으로 바꾸어도 크게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활용판단문에서는 평가를 나타내는 주어와 술어의 관계가 (25)(26)(27)에서의 주제화된 T(O1)과 O2의 관계는 평가의 관계이면서 주어와 술어의 관계처럼 바꾸어 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郭錫良(2007)은 “일반적으로 명사 또는 명사성구로 술어가 구성되며, 사물의 속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다”고 정의를 내렸다. 하지만 고대중국어의 특성상 동사술어도 판단문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게다가 郭錫良(2007)은 일반적으로 명사 또는 명사성구 등으로 된 경우 ‘기본판단문’으로 보았고, 동사술어구 혹은 논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활용판단문’으로 구분하였다.

言非禮義，謂之自暴也。 ⇒ 言非禮義，是自暴也。
 吾身不能居仁由義，謂之自棄也。 ⇒ 吾身不能居仁由義，是自棄也。
 用下敬上，謂之貴貴。 ⇒ 用下敬上，是貴貴。
 用上敬下，謂之尊賢。 ⇒ 用上敬下，是尊賢。
 不教民而用之，謂之殃民。 ⇒ 不教民而用之，是殃民。

ii. T(O1)+是謂+O2: 3개

‘T(O1)+是+謂+O2’의 예는 《論語》에만 3개의 예가 보인다.

- (28) 以不教民戰，是謂棄之。《論語13·30》
 (가르치지 않은 국민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
 (29) 過而不改，是謂過矣。《論語15·30》
 (過誤를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을 過誤라고 한다.)
 (30) 今之孝者，是謂能養。《論語2·7》
 (지금의 효는 능히 ‘養’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의 ‘是’는 앞의 T(O1)을 재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즉, 정확히 말해서 O1의 주제화 주어를 재지시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T(O1)+謂+之+O2’문형 중에서 (20)(21)(22)의 O1과 O2의 관계가 활용판단문의 ‘평가’를 나타내는 문장과 유사성을 지니는 것처럼, (28)(29)(30)의 예문도 유사성을 지닌다. 즉, 다음과 같이 바꾸어도 문장이 무리 없이 성립된다.

以不教民戰，是謂棄之。 ⇒ 以不教民戰，是棄之。
 過而不改，是謂過矣。 ⇒ 過而不改，是過矣。
 今之孝者，是謂能養。 ⇒ 今之孝者，是能養。

iii. T(O1)+之謂+O2: 1개

- (31) 可欲之謂善，有諸己之謂信，充實之謂美，充實而有光輝之謂大，大而化之之謂聖，聖而不可知之謂神。樂正子，二之中，四之下也。《孟子14·25》

(친근하고 싶어지게 하는 것을 옳하다고 하고, 자신이 옳한 德性을 지니고 있는 것을 신용 있다고 하고,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고,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서 光輝가 있는 것을 위대하다고 하고, 위대하면서 感化시키는 것을 성스럽다고 하고, 성스러우면서 알아볼 수 없는 것을 신령하다고 하는 거요. 樂正子は 앞의 두 가지 가운데에 놓여 있고 뒤의 네 가지 밑에 있는 사람이요.)

(31)의 'T(O1)+之謂+O2'의 문형 6개가 같이 병렬되어 쓰이고 있기 때문에, T(O1)이 문장이 길더라도 전치된 것을 나타내는 표지로 조사 '之'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칭'의미의 'T(O1)+之+謂+O2'문형에서 '之'앞에 전치된 성분은 모두 일음절인 것과는 다르지만, 유사성을 띠고 있다.

iv. T(O1)+(可)謂+O2: 12개

'평가'의미를 갖는 'T(O1)+(可)謂+O2'문형은 일률적으로 가정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32) 懷其寶而迷其邦，可謂仁乎？/好從事而亟失時，可謂知乎？《論語17·1》
(자기의 보배를 품안에다 감춰두고서 자기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인자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치에 종사하기 좋아하면서도 자주 그 기회를 잃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33) 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何如？可謂仁乎？《論語6·30》
(민약에 국민들에게 널리 은혜를 베풀어 주고 많은 사람을 患難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仁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34) “敢問何如斯可謂狂矣？”《孟子14·37》
(“감히 여쭙어보건대, 어떻게 되어야 과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32)는 형태표지 없이 가정문을 나타내는 경우이고, 예(33)은 가정문을 나타내는 형태표지 접속사 '如'가 있으면서, O2와 바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의문을 나타내는 '何如'가 있어, O1과 O2사이가 떨어져 있는 특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3)는 앞에 가정을 나타내는 문장이 아니라 의문을 나타내는 '何如'(어떻게 하면)가 쓰인 후 접속사 '斯'가 쓰인 경우로 역시 'T(O1)+(可)謂+O2'문형으로 분류하였다.

v. T(O1)+(斯)謂+之+O2: 1개

- (35) 其言也訥, 斯謂之仁已乎? 《論語12·3》
(말하는 것이 더듬거리면 곧 인자하다는 것입니까?)

‘T(O1)+(可)謂+O2’와는 가정문을 이루지만, ‘T(O1)+(斯)謂+之+O2’는 접속사 ‘斯’를 쓴 것과 앞의 ‘T(O1)’를 재지시하는 ‘之’가 있는 것이 다르다.

② T(O1)이 긴 경우(한구절 이상인 경우)

i. TL(O1)+此之謂+O2: 5개

TL(O1)이 상당히 긴 문장이어서 ‘此之謂’사이에 마침표가 있어 끊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 (36) 舜盡事親之道而瞽瞍底豫, 瞽瞍底豫而天下化, 瞽瞍底豫而天下之爲父子者定. 此之謂大孝.” 《孟子7·28》
(舜임금은 아버지를 섬기는 도리를 다하여 瞽瞍가 기뻐하기에 이르렀다. 瞽瞍가 기뻐하기에 이르러서야 온 천하의 아버지와 자식된 자들이 안정되었다. 이런 것을 큰 孝道라고 한다.)
- (37) 鄉爲身死而不受, 今爲宮室之美爲之, 鄉爲身死而不受, 今爲妻妾之奉爲之, 鄉爲身死而不受, 今爲所識窮乏者得我而爲之, 是亦不可以已乎? 此之謂失其本心. 《孟子11·1》
(먼저 경우에는 자신을 죽게 만들면서도 받지 않고 이 경우에는 아내와妾의 받들어 줌을 위해서 그것을 받고, 먼저 경우에는 자신을 죽게 만들면서도 받지 않고 이 경우에는 자기가 아는 궁핍한 사람이 자기한테서 얻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는다면, 그런 것 역시 그만둘 수 없을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 본심을 잃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TL(O1)+此之謂+O2’문형은 모두 5개가 있으며, ‘TL(O1)’은 모두 긴 문장이 오며 ‘此之謂’앞에서 문장이 끊어진다.

ii. TL(O1)+TL(O2)+此之謂也(斯之謂(與)): 14개

- (38) 孔子曰, “見善如不及, 見不善如探湯. 吾見其人矣, 吾聞其語矣. 隱居以求其志, 行義以達其道. 吾聞其語矣, 未見其人也.” 齊景公有馬千駟, 死之日, 民無德而稱焉. 伯夷叔齊餓于首陽之下, 民到于今稱之. 其斯之謂與? 《論語16·11》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일을 보고서는 그것에 미치지 못해 하는 것같이 하고, 좋지 않은 일을 보고서는 끓는 물에 손을 넣었을 때같이 한다.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았고 나는 그런 말을 들었다 숨어서 살면서 자기의 뜻한 바를 追求하고, 義를 행해가지고 자기의 道를 달성한다. 나는 그런 말을 들었으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齊 景公은 말 4천필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가 죽은 날에는 사람들이 그를 칭송할 만한 德이 없었다. 伯夷와 叔齊는 首陽山 밑에서 굶주리고 살았으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들을 칭송한다고 한 것은 이것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 (39) 暴其民甚, 則身弑國亡, 不甚, 則身危國削, 名之曰‘幽’‘厲’, 雖孝子慈孫, 百世不能改之. 詩云, ‘殷鑒不遠, 在夏后之世.’ 此之謂也.” 《孟子7·2》

(자기 백성에게 포악하게 하는 것이 심할 경우에는 몸이 弑害되고 나라가 망하고,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몸이 위협해지고 나라가 깎이며, 幽 혹은 厲라 이름지어지고, 효성 있는 자손이라 할지라도 百代를 두고도 그 이름을 고치지 못하게 된다. 詩에 ‘殷나라의 거울은 멀리 있지 않나니, 夏后의 시대에 있도다’ 하였는데, 곧 이 점을 두고 한 말이다.)

- (40) 子貢曰, “貧而無詔,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詩》云: “如切如磋, 如琢如磨.” 其斯之謂與? 《論語1·15》

(子貢이 말하기를, “가난하면서도 아첨함이 없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함이 없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괘찮기는 하나 가난하면서도 道를 즐기고, 부유하면서도 禮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 $T_L(O1)+T_L(O2)+$ 此之謂也(斯之謂(與))’의 문형은 모두 14개가 있다. $T_L(O1)$ 과 $T_L(O2)$ 가 모두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이 문형의 특징이다.

14개의 예 중에서 8개의 예는 경전의 내용을 평가내용($T_L(O2)$)으로 삼고 있다. 14개의 문장에서 $T_L(O1)$ 은 문장이 매우 길며 문장이 끊어지고 다시 평가내용($O2$)을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때 ‘此’나 ‘斯’는 평가내용 $T_L(O2)$ 을 재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38)은 경전의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평가내용 $T_L(O2)$ 인 경우이며, $T_L(O1)$ 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자가 언급한 ‘見善如不及，見不善如探湯。吾見其人矣，吾聞其語矣。隱居以求其志，行義以達其道。吾聞其語矣，未見其人也.’이며, 평가내용(O2)은 ‘齊景公有馬千駟，死之日，民無德而稱焉。伯夷叔齊餓于首陽之下，民到于今稱之.’이다. (39)(40)은 경전의 내용을 평가내용(T_L(O2))으로 삼은 경우로 T_L(O1)과 T_L(O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 _L (O1)	T _L (O2)
(43)	暴其民甚，則身弑國亡，不甚，則身危國削，名之曰‘幽’‘厲’，雖孝子慈孫，百世不能改之.	詩云，‘殷鑒不遠，在夏后之世.’
(44)	子貢曰，“貧而無詔，富而無驕，何如？”子曰，“可也，未若貧而樂，富而好禮者也.”	《詩》云：“如切如磋，如琢如磨.”

iii. T_L(O1)+謂+O2: 4개

- (41) 季氏旅於泰山. 子謂冉有曰, “女弗能救與?” 對曰, “不能.” 子曰, “嗚呼! 曾謂泰山不如林放乎?” 《論語3·6》
 (季孫氏가 泰山에서 旅祭를 지내려 하였다. 선생님께서 冉有(염유)에게, “너는 (그 사람을 僭越한 죄에서) 구해낼 수 없느냐?”하시니, “구해낼 수 없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슬프다. 그레 泰山이 林放만 못하단 말인가.”)
- (42) 孟子曰, “不亦善乎! 親喪, 固所自盡也. 曾子曰, ‘生, 事之以禮, 死, 葬之以禮, 祭之以禮, 可謂孝矣.’ 《孟子5·2》
 (孟子께서는 “역시 잘 하시는 겁니다. 親喪이란 본래 스스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曾子께서는 ‘아버이가 살아 있을 적에는 禮로써 섬기고, 죽으면 禮로써 장사지내고, 禮로써 제사지내면 효성스럽다고 할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 (43) 曰, “仁人之於弟也, 不藏怒焉, 不宿怨焉, 親愛之而已矣. 親之, 欲其貴也, 愛之, 欲其富也. 封之有庫, 富貴之也. 身爲天子, 弟爲匹夫, 可謂親愛之乎?” 《孟子9·3》
 (孟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한 사람은 동생에 대해서는 분노를 감춰 두지도 않고, 怨恨을 묵혀 두지도 않고, 그에게 친하게 굴고 그를

사랑한다. 그에게 친하게 굴면 그가 존귀해지기를 원하고, 그를 사랑하면 그가 부유해지기를 원한다. 象을 有?에 封해준 것은 그를 부유하고 존귀하게 해준 것이다. 자신은 天子인데 동생이 匹夫라면, 친하게 굴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 $T_L(O1)+謂+O2$ '의 문형은 모두 4개가 있다. (41)은 $T_L(O1)$ 에 해당하는 부분이 '謂+O2'의 부분과 떨어져 있다. (42)(43)은 ' $T_L(O1)$ '이 가정문을 이루고 있으며, '謂'앞에 '可'가 쓰였으며, 이는 평가 부분의 ' $T(O1)+(可)謂+O2$ '의 문형과 유사성을 띤다.

iv. $T_L(O1)+是之謂+O2$: 2개

(44) 不能三年之喪, 而緦·小功之察, 放飯流歠, 而問無齒決, 是之謂不知務。
《論語13·46》

(三年喪을 지키지 못하면서 緦麻와 小功(五月喪)을 살핀다든지, 밥을 마구 퍼먹고 국물을 줄줄 들이켜면서 이빨로 끊어먹는 일 없기를 따진다든지 하는 것을 두고 힘써야 할 일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45) “梁惠王以土地之故, 糜爛其民而戰之, 大敗, 將復之, 恐不能勝, 故驅其所愛子弟以殉之, 是之謂以其所不愛及其所愛也。”《孟子14·1》

(“梁惠王은 땅 때문으로 해서 자기 백성들을 썩어 몽그러뜨려가며 전쟁을 하다가 大敗하였다.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제들을 몰아다가 따라 죽게 하였다. 이런 것을 두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미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 $T_L(O1)+是之謂+O2$ '의 문형은 모두 2개로, $T_L(O1)$ 이 모두 길다는 것이 특징이다.

v. $T_L(O1)+(可)謂+O2$: 10개

(46) 父在觀其志, 父沒觀其行,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論語1·11》

(부친이 생존할 때에는 그 뜻을 살피고, 부친이 세상을 떠나면 그 行蹟을

살펴 부친이 해오던 방법을 3년 동안 고치지 않는다면 효자라 할 수 있다.)

- (47) 君子食無求飽，居無求安，敏於事而慎於言，就有道而正焉，可謂好學也已。《論語1·14》

(君子로서 식사하는 데는 배부르기를 바라지 않고, 거처하는 데는 편안하기를 바라지 않고, 일에 민첩하며 말에 조심스럽고, 인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가 자신을 바로잡는다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

- (48) 若聖與仁，則吾豈敢？抑爲之不厭，誨人不倦，則可謂云爾已矣。《論語7·34》

(聖인과 仁人 같으면야 내가 어찌 감히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聖인과 仁인의 도리를) 실천에 옮기는 데 싫증내지 않고 남을 가르치는 데 게으르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 (49) 故曰，爲高必因丘陵，爲下必因川澤。爲政不因先王之道，可謂智乎？《孟子7·1》

(그래서 높아지려면 반드시 언덕으로 올라가야 하고, 낮아지려면 반드시 개울과 못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정치를 하는데 先王의 道를 따르지 않는다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 $T_L(O1)+(可)謂+O2$ ’문형은 모두 11개가 나타났으며, ‘ $T_L(O1)+(則)謂+O2$ ’문형도 같은 문형에 포함시켰다. 11개의 예가 일률적으로 가정문을 이루고 있다. (46)(47)은 일반가정문 형식이고 (48)는 명사술어문이 가정문 형식으로 된 경우이며, (49)은 반문의 형식으로 쓰였다.

③ 특수문형

앞에서 언급한 문형들 외에 따로 설명해야 할 문형이 있다. 역시 지칭과 평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지칭〉

- (50) 孟子見齊宣王，曰，“所謂故國者，非謂有喬木之謂也，有世臣之謂也。王無親臣矣，昔者所進，今日不知其亡也。”《孟子2·7》

(孟子께서 齊 宣王을 만나셔서 “이른바 故國이라는 것은 喬木이 있는 것을 두고서 하는 말은 아니고, 대대로 공훈을 세워 내려온 신하들이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왕께는 親任할 신하가 없습니다. 오래 전에 登用한 사람들로 오늘에 와서도 없애야 할 사람들임을 모르십니다”)

(50)은 ‘所謂’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칭’의 O2에 해당하는 것은 ‘故國’이다. O1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所謂故國者, 非謂有喬木之謂也, 有世臣之謂也.’는 ‘謂’가 ‘所謂’구조를 이루어 주어역할을 하고 있으며, 활용판단문의 원인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평가〉

(51) 士何如斯可謂之達矣? 《論語12·20》

(선비는 어떻게 되면 통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51)은 ‘T(O1)+(可)謂+之+O2’의 문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之’가 지시하는 바는 어떤 때는 모호성을 띤다. 어떤 때는 사람에 대한 지시 역할을 하지만, 어떤 때는 행위에 대한 지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야 한다. 본고에서는 ‘士何如’(선비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를 O1으로 보았다.

(52) 曰, “是詩也, 非是之謂也, 勞於王事而不得養父母也. 曰, ‘此莫非王事, 我獨賢勞也.’ 故說詩者, 不以文害辭, 不以辭害志. 以意逆志, 是爲得之. 《孟子9·4》

(孟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시는 그런 점을 말한 것은 아니다. 왕의 일을 애써 하면서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는 것을 다룬 것으로 ‘이는 왕의 일 아닌 게 없는데 나 혼자 많이 애쓴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를 해설하는 사람은 글자로 말을 해치지 않고, 말로 뜻을 해치지 않는다. 읽는 사람의 마음으로 시의 뜻을 맞아들인다면 그것이 바로 하는 것이다.”)

(53) 曰, “豈謂是與? 曾子曰, ‘晉楚之富, 不可及也, 彼以其富, 我以吾仁, 彼以其爵, 我以吾義, 吾何慊乎哉?’ 夫豈不義而曾子言之? 《孟子4·2》

(“어찌 그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曾子께서 ‘췌나라와 楚나라의 財富는 따라가지 못한다. 그들은 재부를 가지고 하나 나는 내 인자함을 가지고 하며, 그들은 그들의 爵位를 가지고 하나 나는 내 正義를 가지

고 하는데 내가 어찌 밀리겠는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義롭지 않으면서 曾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52)의 ‘是之謂’의 형식을 쓴 문형은 앞의 ‘평가’의미의 ‘T_L(O1)+是之謂+O2’의 문형과 유사해 보이지만, 의미구조상 다르게 쓰였다. (52)에서 ‘是’가 앞으로 전치된 것은 앞의 내용을 재지시하는 기능도 있지만, 부정사 ‘非’의 의미지향이 ‘是’이기 때문에 전치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53)의 경우 ‘是’는 ‘謂’의 목적어로 전치되지 않고, 앞의 내용을 재지시하는 기능도 있는 것을 보면, (52)의 경우는 ‘非’부정의 의미지향이 ‘是’이기 때문에 전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4) 孟子曰, “於答是也, 何有? 不揣其本, 而齊其末, 方寸之木可使高於岑樓. 金重於羽者, 豈謂一鈎金與一輿羽之謂哉? 《孟子12·1》
(孟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근본되는 것을 헤아려 놓지 않고서 末端的인 것을 동등하게 다룬다면, 사방 한 치 되는 나무로도 산언덕보다도 높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쇠가 새털보다 무겁다고 한다면, 어찌 핵대고리 쇠 하나와 수레에 가득 찬 새털과를 두고 한 말이겠느냐?)

(54)는 가정문을 이루면서 반문을 하는 형식을 갖추어, 앞에서 설명한 문형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一鈎金與一輿羽’는 조사 ‘之’를 써서 목적어가 전치되었음을 나타낸다. ‘豈謂’의 ‘謂’는 ‘T(O1)+謂+之+O2’와 ‘T(O1)+是+謂+O2’의 문형이 확장판단문의 ‘평가’와 유사한 것처럼, 유사성을 띠고 있다. 즉, O1은 ‘金重於羽者’, O2는 ‘一鈎金與一輿羽之謂’(목적어‘一鈎金與一輿羽’의 전치형태)로 의미관계는 확장판단문의 평가의미를 가지며, 가정문 형식과 반문의 형식이 합쳐진 문장으로 분석될 수 있다.

(55) 孔子曰, “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鄉.” 惟心之謂與.” 《孟子11·8》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잡으면 남아 있고, 버리면 없어지고, 때 없이 드나들고, 제 고장을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단지 마음에 대해서 한 말일 것이다.)

(55)는 앞에서 설명한 문형과는 달리 O2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체화 된 경우로 문장의 구조는 'TL(O2), (惟)O1+之謂(與)'로 볼 수 있다. O1에 해당하는 '心'은 '惟'로 초점화 시켜 앞으로 전치된 경우이다.

V. 의문대사 '何'와 '謂'가 쓰인 문형

의문대사 '何'와 '謂'가 쓰여진 고정형식 '何謂'의 문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T{O1(何)}+謂+O2

'T{O1(何)}+謂+O2'문형은 모두 8개가 있다.

- (1) 何謂五美? /何謂惠而不費? /何謂四惡?《論語20·2》
(무엇이 다섯 가지 美德입니까?/ 무엇이 은혜스러우나 낭비하지는 않는 것입니까?/무엇이 네 가지 惡입니까?)
- (2) 何謂尙志?《孟子13·3》
(무엇이 뜻을 숭상한다는 것입니까?)

(1)(2)의 예는 '謂'앞에 '何'가 쓰이고 O2가 '謂'뒤에 쓰인 예이다. '지칭'과 '평가'의 의미가 섞여 있다.

2. TL(O1)+O2(何)+謂

'TL(O1)+O2(何)+謂'문형은 모두 10개가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주체화된 O1은 일반적으로 모두 길게 나타난다. 두 번째 특징은 '何謂'다음에 일률적으로 어기조사 '也'로 끝난다. 일반적으로 '何謂也?'는 '무슨 의미입니까' 혹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 (3) “敢問或曰放者，何謂也?”《孟子9·3》
 (“감히 여쭙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쫓아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4) 子曰，“參乎! 吾道一以貫之.” 曾子曰，“唯.” 子出，門人問曰，“何謂也?”
 《論語4·15》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參(삼)아, 나의 道는 하나로써 관철되어 있다.” 曾子께서는, “예.”하고 대답하셨다. 선생님께서 밖에 나가시자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신가요?”물었다.)
- (5) “巧笑倩兮，美自盼兮，素以爲絢兮”，何謂也?《論語3·8》
 (“귀엽게 웃는 얼굴 예쁘고, 아름다운 눈은 까맣고 희기도 하네. 흰 바탕에 채색한 것이로세.”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3)은 T(O1)이 다른 예에 비해서 짧은 문장이지만, 같은 문형에 포함시켰다. 게다가 T(O1)에 해당하는 부분은 ‘敢問或曰放者’가 아니라 ‘或曰放者’로 일부만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4)의 T(O1)는 바로 앞의 문장이 아니라 대화 중에 언급했던 ‘吾道一以貫之’이다. (5)의 T(O1)에 해당하는 부분은 ‘巧笑倩兮，美自盼兮，素以爲絢兮’인 것과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T(O1)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별할 때는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이외에 상기 문형의 변형된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 徐子以告夷子. 夷子曰，“儒者之道，古之人若保赤子，此言何謂也? —”
 《孟子5·5》
 (徐자가 이 말씀을 夷子에게 알려주었더니, 夷자가 “儒者の 道는, 옛날 사람은 아기를 보살피주는 것 같이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6)는 ‘T_L(O1)+O2(何)+謂’문형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T(O1) 부분을 ‘此言’으로 재지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VI. 結語

‘緒言’에서 말한 ‘是謂’의 ‘是’를 간단하게 ‘謂’목적어의 전치, 혹은 ‘是謂’는 재지시와 주어 술어구조 등으로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동사‘謂’의 ‘어떤 사실 혹은 명제에 대한 평가’의 의미일 때 주로 나타나며 평가대상(O1)의 문장이 길면 앞으로 전치되어 주제화되면서 다시 ‘是’로 재지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게다가 ‘是謂’로 이루어진 문장은 T(O1)과 O2의 관계가 확장 판단문의 ‘평가’의미의 관계가 된다는 것과 ‘是謂’로 이루어진 문장이 동사‘謂’의 ‘어떤 사실 혹은 명제에 대한 평가’의 의미일 때만 쓰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是謂’의 용법으로 본고를 시작했지만, 이러한 용법을 살피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謂’와 관련한 다양한 용법을 살피는 것이 더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이상으로 ‘謂’의 각 항목별 이중목적어구조의 기본문형과 확장문형을 살펴보았다.

‘謂’의 사람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문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謂+O1+O2’ 기본문형	6개		
‘謂+O1+O2’ 확장문형	O1의 주제화	T(O1)+(其)可+謂+O2	2개
		若T(O1)+(則)可+謂+O2	1개
		T(O1)+之+謂+O2	1개
		T(O1)+謂+之+O2	1개
	O2의 주제화	T _L (O2)+O1之+謂(也)	2개

‘謂’의 ‘말하다’의미와 관련한 문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謂+O1+O2’기본문형	겸어문형식	6개
	O1 혹은 O2만 나타난 경우	3개
‘謂+O1+曰+O2’	15개	

‘謂’의 사실 혹은 명제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부분은 크게 ‘지칭’과 ‘평가’로 나눌 수 있었다. 지칭 ‘謂+O1+O2’의 기본문형은 2개로 간단히 살펴볼 수 있었지만, 확

장문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관련 문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O1)이 짧은 경우	T(O1)+謂+之+O2	2개
	T(O1)+之+謂+O2	2개
T(O1)이 긴 경우	T _L (O1)+皆+謂+O2	1개
	T _L (O1)+S+不+謂+O2	2개
	T _L (O1)+則+謂+之+O2(가정)	1개
	T _L (O1)+故+謂+O2(원인)	1개
	T _L (O1)+此之謂+O2(가정)	1개

‘謂’의 사실 혹은 명제에 대한 평가 ‘謂+O1+O2’ 기본문형은 3개로 역시 간단히 살펴볼 수 있었지만, 확장문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관련 문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O1)이 짧은 경우	T(O1)+謂+之+O2	12개
	T(O1)+是謂+O2	3개
	T(O1)+之謂+O2	6개
	T(O1)+(可)謂+O2	12개
	T(O1)+(斯)謂+之+O2	1개
T(O1)이 긴 경우	T _L (O1)+此之謂+O2	5개
	T _L (O1)+T _L (O2)+此之謂也(斯之謂(與))	14개
	T _L (O1)+謂+O2	4개
	T _L (O1)+是之謂+O2	2개
	T _L (O1)+(可)謂+O2	10개

마지막으로 의문대사 ‘何’와 ‘謂’가 쓰인 문형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T(O1(何))+謂+O2	8개
T _L (O1)+O2(何)+謂	10개

결론적으로 ‘謂’와 관련한 문장은 이중목적어구조를 기본으로 가지며, 각 의미항 목별로 특유의 기본문형과 확장문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확장문형은 주제화로 인하여 다양한 문형이 생성되며, 문형이 생성될 때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參考文獻】

- 王力著《漢語史稿》北京：中華書局，1980[2002].
- 黃廣生〈試論“謂之”“之謂”在先秦古籍中的用法〉：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第3期，1983.
- 郭廣敬〈關於古漢語中“是謂”“之謂”“謂之”的辨析〉，信陽師範學院學報第3期(哲學社會科學版)，第3期 1984.
- 王冠軍〈古漢語“是謂”結構辨證〉：徐州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1期，1984.
- 易孟醇《先秦語法》湖南教育出版社，1989.
- 邊滢雨 북경대학박사학위 논문 부록《論語詞典》，1997年9月.
- 郭錫良《古代漢語語法講稿》語文出版社，2007.
- 王力主編《王力古漢語字典》，北京：中華書局第1版，2000年6月.
- 張先坦《漢語史及其教學論稿》齊魯書社，2011年12月.

【中文提要】

對於‘彼民有常性，織而衣，耕而食，是謂同德。’(《莊子·馬蹄》)之類句子中的‘是謂’，王力(1980[2002]:357)認為‘是’是動詞‘謂’的賓語前置，這類句子翻譯起來應該是‘人們把他叫做什麼’。但有的學者提出此類句子的‘是’不應看成是‘謂’的賓語前置，認為這裏的‘是’與‘富與貴，是人之所欲也。’(《論語·里仁》)之類句子的‘是’相同，都是複指主語，如郭廣敬(1984)。王冠軍(1984)還提出，句子裏並不存在‘人們’的義項，將這個義項譯出比較勉強，說這樣的句子應是主謂結構。這樣的意見分歧是忽視了‘謂’的句法及語義特點而產生的。本文爲了弄清‘是謂’句中‘是’的歸屬，詳細考察了《論語》和《孟子》中‘謂’的用法。對於‘謂’的用法主要在以下4個方面進行了分析：

1. ‘謂’對人的評價
2. ‘謂’的‘告訴’義
3. ‘謂’對事實或命題的評價

4. 疑問代詞‘何’和‘謂’的結合使用

考察發現‘謂’一般都帶有雙賓語，根據‘謂’的義項不同，形成基本句型和活用句型。在活用句型上，對象賓語主題化形成多種類型的句子。本文考察的‘謂’的句型如下：

‘謂’用於對人的評價如下表：

‘謂+O1+O2’ 基本句型	6例		
‘謂+O1+O2’ 活用句型	O1主題化	T(O1)+(其)可+謂+O2	2例
		若T(O1)+(則)可+謂+O2	1例
		T(O1)+之+謂+O2	1例
		T(O1)+謂+之+O2	1例
	O2主題化	T _L (O2)+O1之+謂(也)	2例

‘謂’的‘說’義句型如下表：

‘謂+O1+O2’ 基本句型	兼語句	6例
	只出現O1或者O2	3例
‘謂+O1+曰+O2’		15例

‘謂’對事實或者命題的評價基本句型如下表：

T(O1)較短	T(O1)+謂+之+O2	2例
	T(O1)+之+謂+O2	2例
T(O1)較長	T _L (O1)+皆+謂+O2	1例
	T _L (O1)+S+不+謂+O2	2例
	T _L (O1)+則+謂+之+O2(假設)	1例
	T _L (O1)+故+謂+O2(原因)	1例
	T _L (O1)+此之謂+O2(假設)	1例

‘謂’對事實或者命題的評價活用句型如下表：

T(O1)較短	T(O1)+謂+之+O2	12例
	T(O1)+是謂+O2	3例
	T(O1)+之謂+O2	6例
	T(O1)+(可)謂+O2	12例
	T(O1)+(斯)謂+之+O2	1例
T(O1)較長	T _L (O1)+此之謂+O2	5例
	T _L (O1)+T _L (O2)+此之謂也(斯之謂(與))	14例
	T _L (O1)+謂+O2	4例
	T _L (O1)+是之謂+O2	2例
	T _L (O1)+(可)謂+O2	10例

‘何謂’句型如下表：

T(O1(何))+謂+O2	8例
T _L (O1)+O2(何)+謂	10例

當用‘是’複指的時候, ‘是’位於動詞‘謂’之前, ‘是’並有複指主題的傾向. 這一點在‘是謂’之類的固定結構中有所體現. 使用‘謂’的句子語義特點帶有評價語義時, ‘是謂’句的‘謂’還有語義脫落現象, 如‘以不教民戰, 是謂棄之.’(《論語13·3》)這類句子也可以說成是“以不教民戰, 是棄之.”. ‘彼民有常性, 織而衣, 耕而食, 是謂同德.’(《莊子·馬蹄》)這類句子正是“謂”的語義脫落現象的體現. 這裏的‘是’是爲了主題化而形成的‘謂’的語義上的賓語前置, ‘是’並有複指主題的傾向.

【主題語】

是謂, 謂, 주제화, O1O2, 이중목적어, 목적어전치, 지칭, 평가

투고일: 2014. 7. 15 / 심사일: 2014. 7. 20~8. 5 / 게재확정일: 2014. 8. 10